더 늙어가는 전남, 65세 이상 26.67% 전국서 가장 높아

고흥 45.04%, 청년은 16.51%뿐
세종 11.32%, 서울 18.96%
비수도권 심화…전국 1000만62명

#. 전남지역엔 경로당만 9233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26.67%)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을 엿볼 수 있는 수치다. 60대 이상 이장도 6257명으로 전체 이장(8701명)의 72%나 된다. 이들 노인들을 위한 농·어촌 목욕탕도 22개 시·군에 142개나 된다. 반면, 어린이집은 910개에 불과하다. 유치원도 464개가 전부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전남은 65세 인구가 47만 8623명으로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26.67%)이 가장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11일 밝혔다.

65세 이상 남자는 442만 7682명, 여자는 557만 2380명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 4698명 더 많다.

65세 이상 수도권 거주 인구는 448만 9828명, 비수도권은 551만 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다, 비수도권의 고령화도 심화되는 형편이다.

수도권은 권역 내 전체 주민등록인구 2604만 284명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 2522만 8728명 중 21.84%가 65세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67%로 가장 높았다.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42만 2548명에서 43만 5880명(2020년)→44만 5198명(2021년)→45만 7481명(2022년)→47만 874명(2023년)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집계한 22개 시·군별 65세 이상 인구비율로는 고흥(45.04%)로 가장 높았다. 고흥의 경우 전체 인구(6만 941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2만 7326명인 반면, 청년 인구(18~45세)는 1만 19명(16.51%)에 불과했다.

보성(43.03%·1만 6092명), 함평(40.67%·1만 2343명) 등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40%를 넘었다.

전남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하인 지역은 광양(15.86%·2만 4294명), 순천(18.71%·5만 1815명) 등 2곳 뿐이었다.

전국에서는 경북(25.35%), 강원(24.72%), 전북(24.68%), 부산(23.28%), 충남(21.80%), 충북(21.42%), 경남(21.25%), 대구(20.26%) 순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 11.32%로, 서울은 18.96%였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1월 600만 8757명(11.79%)으로 600만명대에 진입한 뒤 2017년 1월 703만 1367명(13.60%), 2019년 12월 802만 6915명(15.48%), 2022년 4월 900만 4388명(17.45%) 등으로 증가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노동계 1만1150원·경영계 9900원

2차 수정안 제시…각각 13.1%·0.4% 인상안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150원, 경영계는 9900원을 내놓았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2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지난 9차 회의에서 내놓은 1차 수정안인 노동계 1만1200원, 경영계 9870원에서 노동계는 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노동계 2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 대비 13.1% 올린 것이고, 경영계는 0.4% 올린 것이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 2600원, 경영계는 동결이었다.

이날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낸 1차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회 끝에 이처럼 한발씩 물러난 안을 가져왔다. 그러나 노사 격차가 아직 1250원에 달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간격 좁히기에 나선다. 이날 결론을 내기는 쉽지는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해 일자리 찾아 한국 온 외국인 17만3000명…중국 최다

전년비 36% 증가…역대 두번째
고용허가제 확대 등 정책 영향
엔데믹 이후 국제 이동자 증가세

지난해 고용허가제 확대 등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총이동자는 12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1000명(13.5%) 증가했다. 총이동자 수는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를 합한 것이다.

이중 입국자는 69만8000명, 출국자는 57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만2000명(15.2%), 5만9000명(11.4%) 늘었다.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국제 순 이동은 12만 1000명 순유입을 기록했다. 순유입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3만3000명 증가했다.

국제 이동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88만7000명) 바닥을 찍은 뒤 2년째 증가세다.

외국인 입국은 48만명, 출국은 3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만7000명(16.2%), 7만5000명(30.5%) 증가했다. 16만1000명 순유입으로 순유입 규모는 전년보다 8000명 줄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순유입을 기록했고 20대가 8만1000명으로 가장 컸다.

국적별로 입국자를 보면 중국이 13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7만1000명), 태국(3만 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3국 입국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49.6%를 차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취업이 17만300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3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008년(17만6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와 고용허가제 확대, 재외동포 단순 노무 취업 제한 완화 등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취업에 이어 단기(10만1000명·21.0%), 유학·일반연수(8만3000명·17.3%), 영주·결혼이민 등(5만8000명·12.1%)을 사유로 한 입국도 많았다. /연합뉴스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에 뉴진스

"한국, 세계 젊은이에 각인되길"
미식·체험 광고 2편 유튜브 공개
타임스퀘어 등 12개 도시 송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K팝 그룹 뉴진스〈사진〉를 2024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뉴진스는 방한객 3명 중 1명을 차지하는 청년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한국 관광 캠페인을 펼친다. 이날 공개된 광고 2편(미식편, 체험편)은 최근 방한 관광 흐름을 반영해 '검색으로는 알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이 알려주는 찐 한국여행'(Koreans Korea)이란 기획으로 제작됐다.

멤버들은 전통시장을 찾아가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거나, 등산 후 컵라면을 함께 즐기고, 바닷가에서는 충무김밥을 먹으라고 조언한다. 또한 뉴진스가 한국어 대사를 하고 '촌캉스', '카페투어', '자개공예' 등 추천 코스를 한글 디자인으로 보여준다.

이들 광고는 이날 한국 관광 유튜브 채널(Imagine your Korea) 등 온라인에서 공개된다. 이어 뉴욕 타임스퀘어를 시작으로 도쿄와 상하이, 방콕, 두바이, 멕시코시티 등 세계 12개 도시 전광판에도 송출된다. 파리올림픽 기간에는 파리 시내 곳곳의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숏폼 콘텐츠로 상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최대 20만원 환급

전남도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 사업자다. 기존 3000만원에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지원 가능하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으나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024년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 원이 차감되며 한전과 직접계약을 하지 않은 전기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고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2023~2024년 납부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당초 6월 30일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됐다. 기존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SINCE 1952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남도 인구정책, 대통령 표창

전남도가 추진해온 인구정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라도는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 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등의 정책을 추진한 공로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올해를 지역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한 뒤 인구 위기 탈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다.

또 저출산 주된 원인인 양육·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남도, 시·군 출생수당' 지원,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 등 지역특화 인구정책을 펼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다·광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운영(9곳), 전국 최초·전국 유일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 혁신적 출산지원 정책도 인정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중 못 받은 돈 회수 양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용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피고인 : 최종호

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년 7월 5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나상아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모은이엔지(이하 "갑"이라함)와 주식회사 건유이앤지(이하"을"이라함)는 각각 2024년 07월 1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530조의2 규정에 따라 "갑"의 그 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갑"의 분할된 전기공사업의 재산, 부채 등은 "갑"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며 상법제 530조의9 제3항의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던 바,이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1. 분할합병대상 : 전기공사업 (광주 01235 호)

"갑" **주식회사 모은이엔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38번길27(월출동)
대표이사 김 태 수 (062) 971-6602

"을" **주식회사 건유이앤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8번로 28-20(연산동)
대표이사 김 용 채 (062) 945-1434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대성이엔지(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대동공사(이하 "을"이라 함)와 엠지이엔씨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함)는 서기 2024년 07월 11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그 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과 "을"과 "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이에 공고함.

2024년 7월 12일

"갑" **주식회사 대성이엔지**
(법인등록번호 : 204911-0014799)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90, 1층
사내이사 박 성 식

"을" **주식회사 대동공사**
(법인등록번호 : 204311-000911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부령로 7
대표이사 박 종 화

"병" **엠지이엔씨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201211-0008723)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옥룡마을길 136
사내이사 김 민 욱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교반종합건설(이하 "갑"이라 함)과 벤엘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서기 2024년 07월 11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이에 공고함.

2024년 7월 12일

"갑" **주식회사 교반종합건설**
(법인등록번호 : 210111-006823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57, 2층 8호
대표이사 김 성 수

"을" **벤엘이엔씨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30111-0066795)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22
사내이사 정 미 영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광성이엔지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새움전기(이하 "을"이라한다)는 2024년 07월 10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는 "을"이 포괄승계하고, 상법 제530조의 9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내로 본 회사에 이의를, 구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2일

면허의 종류 : 전기공사업(등록번호 : 광주-00958호)

"갑" **주식회사 광성이엔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7(월출동)
사내이사 박 선 용

"을" **주식회사 새움전기**
경상북도 문경시 신흥시장길 22, 202호(흥덕동)
대표이사 신 인 철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光州日報 |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